



대낮 도심 10대 집단구타 현장

당신의 자녀는 안전한가요?

25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3학년인 김모(17)군 등 10대들이 손모(17)군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다. 폭력은 무려 30여분 동안 계속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즐기듯 구경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경찰·교육당국·자치단체들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해학생들은 버젓이 대낮 도심 한 복판에서 스스럼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집단구타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중단됐지만, 언제든 어느 장소든 청소년 폭력이 자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임동혁

젊은거장이 들려주는 환상 선율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피아노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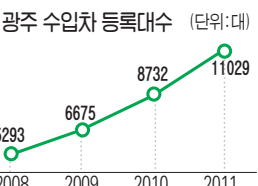
광주일보 창사60주년 since 1952

광주일보는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젊은 거장'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을 개최합니다.

12살이던 1996년 모스크바국제청소년 소풍 콩쿠르에서 2위 입상 후 모스크바립음악원에 최연소 입학한 임씨는 이후 통티보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2001), 소풍 콩쿠르 3위(2005) 등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2002년 EMI에서 발매한 데뷔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즈상'을 수상한 임씨는 4차례에 걸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을 매진시키고, 인터넷 카페 회원수가 4만명에 이르는 스타 연주자입니다. 공식 데뷔 10주년을 맞아 전국11개 도시 투어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을 집중적으로 들려줍니다. 클래식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2012년 2월 19일(일) 오후 8시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공연마루
- 문의: 062-220-0541, 1588-0766
- 예매: 티켓마루, 인터파크

광주 수입차 1만대 넘어



지난해 광주지역 수입차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대를 돌파했다.

25일 광주시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수입차 등록대수는 1만1029대로, 전년(8732대)보다 26.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역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3.3%)과 비교하면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치다.

광주지역 수입차 등록대수는 지난 2008년 5293대에서 2009년 6675대, 2010년 8732대로 해마다 30%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격이 인하되면서 직장인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지역의 신규 등록대수는 지난 2001년 268대에서 지난해 1724대로 10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6.4배 성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여수박람회 지역잔치 전략 막아라

D-107, 관람객 수요예측 최종 조사

관람객 증가 불구 외국인 기대 못미쳐

숙박수요 되레 감소...인지도 50% 미만

오는 5월 12일 개막하는 '2012여수 세계박람회' 관람객이 1082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전 실시한 조사(1047만9000명)보다 34만 2000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외국인 관람객은 여전히 기대에 못미쳐 '지역 축제' 전략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또 관람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박 수요는 오히려 감소해 '체류형' 관광이 아닌, '당일치기' 관광에 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이렇다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경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제 3차 관람객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람회 기간 내 관람객이 1082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 중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개막식(5월 12일)에 맞춰 5월 주말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람객이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48만9000명(4.5%)이 찾을 것으로 예측돼 조직위 애초 목표(55만명)를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년 전 이뤄진 2차 수요조사(42만4000명)에 비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본 아이치 박람회(2005년·4.8%), 상해박람회(2010년·5.8%)에 비해 못미쳐 '지역 축제'로 전략하지 않도록 세밀한 해외 마케팅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람회 개막까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박람회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인지도는 49.2%에 머무르면서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4월 28.9%→2011년 2월 34.8%→2012년 1월 49.2% 순으로 박람회가 다가올수록 인지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대전박람회의 개최 1년 전 인지도(76%)에 턱없이 못미친다. 게다가 19~29세 젊은층의 48.8%는 박람회 개최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30~39세 장년층의 35.5%도 박람회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관람객 증가가 예상됨에도 숙박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년 전 수요조사에 견줘 34만2000명의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숙박 수요는 1년 전(3만9000실)에 비해 3200실이 감소한 3만5700실에 그쳤다. 고급 숙박시설

인 호텔(328실)·콘도(113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모텔이나 펜션, 유스호스텔 등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 열악한 숙박시설과 비싼 요금 등을 고려해 '체류형'에서 '당일치기'로 변경하려는 관람객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박람회장에서 2시간30분 걸리는 지역까지 확대하더라도 펜션·휴양림(7300실), 콘도(4096실) 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학기 광주·전남 초중고 전면 5일제 수업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가 오는 3월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한다. 25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초등 148개교, 중 87개교, 고교 64곳 등이 3월1일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한다.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송덕·보문은 기존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유지키로 해 사실상 전체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셈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전체 831개 초·중·고교 가운데 9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주5일제로 수업한다. 기존 격주 5일제 시행학교는 영암 미암초, 신안 도초중, 보성 용정중이다. 고교에서는 광양제철고, 신안 도초고, 담양 한빛고, 벌교고, 영산 성지고, 장성고 등 6곳이 포함됐다.

광주의 경우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해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확

대 운영키로 하는 한편, 토요 스포츠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조직인 방과후 학교지원을 꾸려 전남대와 광주교대 등과 함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으며, 이들 기관과 강사지원·연수 등 협력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은 용기와 비상,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12년 용같은 용기로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셔서 용의 비상처럼 더 크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보살핌에 감사드리고 임진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객의 건강과 아픔을 함께 하며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주 21세기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외과병원
광주 21세기병원 | 운남고등학교 맞은편
062-953-7000 · 958-9000